동구청 공무원 악단 '웰 앙상블' 단원들이 오는 10월 충장로 축제를 앞두고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청 공무원들 악단 '웰 앙상블' 조직

광주시 동구청 공무원들이 오는 10월 열리는 '제3회 광주 충장로축제' 길거리 공연에 참가하기 위해 색소폰과 기타, 드럼 채를 손에 잡았다.

동구청 지하 1층 민방위 교육실에서는 매주 화·목요일 저녁 신명난 드럼소리와 은은한 기타 아르페지오(arepeggio) 연주가 흘러나온다. 동구청 공무원 악단 '웰 앙상블'(Well Ensemble, 단장 박형철 보건소장)이 충장로축제에서 솜씨를 뽐내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며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최초의 공무원 악단인 '웰 앙상블'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3월.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정홍은(평생학습문화추진단 7급)씨 등이 모여 기타 연습을 하면서 시작됐다. 기타 소리에 이끌린 다른 공무원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현재 회원 수는 35명에 달한다.

10월 충장로축제 길거리 공연

이들은 기타·섹소폰·오르간 등 각자 익숙한 악기를 들고 절묘한 '하모니'를 이룬다. 평일에는 화·목요일 오후 6시30분~8시30분, 일요일에는 오후 3시~7시 연습을 하며 평소 감추고 있던 '끼'를 마음껏 분출한다.

'웰 앙상블'은 갈고 닦은 실력을 다음달 7일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웰 앙상블 미니콘서트'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인다. '소녀의 기도'(피아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기타) '해변의 길손'(색소폰) 등 주옥같은 음악들이 그들의 손에서 연주된다.

박형철 단장은 "음악을 할 때만큼은 상사와 부하의 경직된 관계에서 벗어난다"면서 "음악을 통해 딱딱한 공무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신안군 임자도 '타리 기생'의 恨

"기억해주오, 日帝에 꺾인 '50송이 넋'을"

'日人 잠자리 거부' 살해된 동료따라 자살
뱃사람들에 口傳 … 향토 학자 고증 나서

해마다 광복절이면 일제에 저항했던 수많은 애국지사가 기려지지만, '그녀'들의 '작은 항거'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조선시대 마지막 기생들의 '한 조각 붉은 마음'은 이제 뱃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신안군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앞에는 둘레 5.8km 면적 40만㎡(13만 평)의 작은 섬이 하나 있다. '대태이도'(大台耳島)가 정식 명칭이지만 주민들은 흔히 '섬타리'라고 부른다. '섬타리'는 350여 년 전부터 전국 제일의 민어 파시(民魚 波市)로 명성을 떨쳤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19세기 말부터는 임자도 민어 맛에 감탄한 일본인들이 파시에 몰려들었다.

'타리 파시'에는 기생들이 있었다. 그녀들은 '청노'라고 부르던 식당에서 선주들과 뱃사람·관광객들을 맞았다. 어여쁜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을 지녔던 그녀들은 큰 인기를 누렸고, '타리 기생'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섬타리'에는 '게이샤'(藝者·일본 기생)까지 합쳐 100여명의 기생이 있었다.

구전(口傳)에 따르면 '타리 기생'의 비극은 한일병합(1910년) 직후 한 때의 일본인들이 잠자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조선의 여인인 우리가 당신들에게 몸을 허(許)할 수는 없소"라며 거절하자, 술 취한 어떤 일본인이 칼로 기생 한 명을 베어버렸다는 것이다. '타리 기생'들과 임자도 어민들은 한데 뭉쳐 살인을 한 일본인의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라 잃은 백성'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일본인들이 임자도를 떠나던 날. '타리 기생' 50여 명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설움에 복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곤 한밤 중 '머리기생'의 집에 모여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온다.

기생들의 주검은 뱃사람들에 의해 임자도 하우리 포구 모래밭에 한꺼번에 매장됐다고 한다. 무덤은 그러나 갯바람에 씻겨나가고 1960년대 이후 파시가 사라지면서 가녀린 기생들의 서글픈 이야기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지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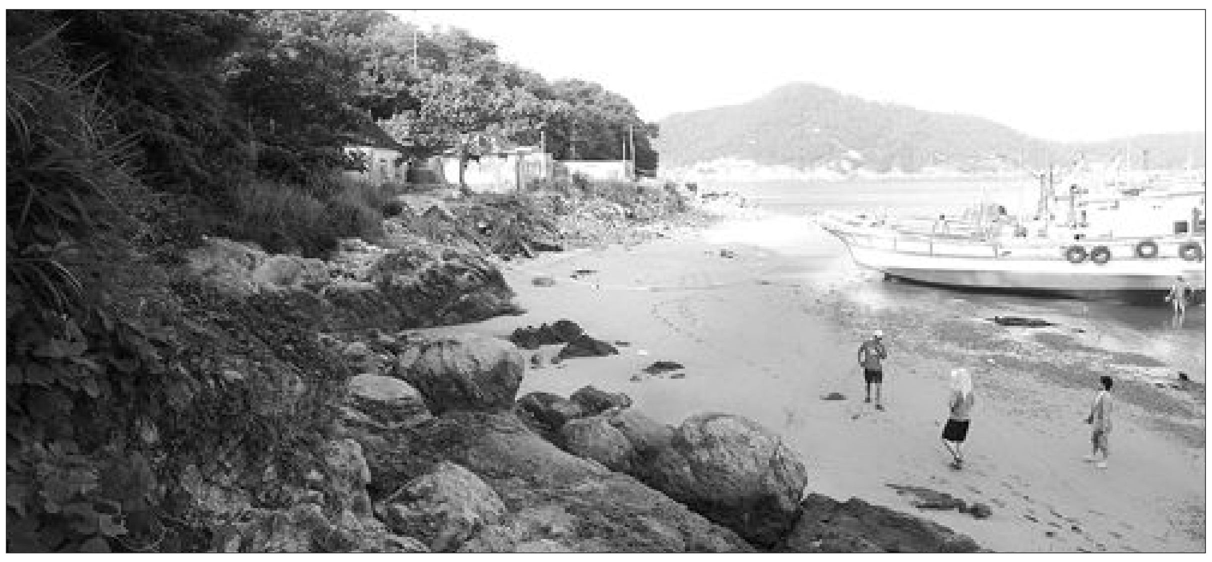
임자도 토박이 정정섭(73)씨는 "어릴 적 어른들의 손을 잡고 파시에 가 '타리 기생'들의 창·노래·장구 등을 들었다"면서 "몇몇 기생들이 일본인들의 손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임자도에 흐르는 항일의 맥은 '타리 기생'만이 아니었다. '지도총쇄록'(지도 군수 오횡묵의 일기)에는 1896년 임자도 파감(派監) 김복연이 조선인을 구타하던 일본인들에게 돌팔매질을 했다가, 원한을 품은 일본인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임자 출신 김영회씨를 비롯한 향토학자들은 최근 '섬으로 흐르는 역사'라는 책 등을 통해 '타리 기생'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역사적 고증에 나서고 있다. 일부 작가는 소설로 집필 중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섬타리'에서 못 다 핀 청춘을 접었던 '타리 기생'들의 한(恨) 많은 '넋 건지기' 굿판은 언제쯤 볼 수 있으려나-.

/신안=조완남·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신안군 임자도 '섬타리'의 전경. 일제시대 때 민어 파시가 섰던 이곳에는 나라 잃은 '타리 기생'들의 서글픈 이야기가 구전(口傳)돼 오고 있다. /신안 임자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피서객 등 346명 태운 홍도 쾌속선

폐비닐로 기관고장 해상 표류

섬 피서객을 싣고 육지로 향하던 쾌속선이 수류분사장치 고장으로 50여분 동안 표류하다 예정시간보다 2시간30분 늦게 목적지에 도착, 여객들이 불안에 떨며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께 신안군 비금도 서방 26km 해상에서 목포~홍도 간 정기여객선인 399t급 동양고속 '골드스타'호(선장·김아양·53·사진)가 기관고장을 일으켰다.

'골드스타'호는 ▲전장 33.89m ▲선폭 12m ▲정원 358명 ▲최고속력 45.2노트(시속 84㎞)로, 바닷물을 흡입해 뒤로 배출하는 힘으로 운항하는 워터제트(water-jet) 방식의 쾌속선이다.

이날 사고는 바닷물을 흡입하던 중 우현 엔진 냉각장치 흡입구로 바다에 떠있던 폐비닐이 함께 빨려들어가면서 일어났다. 이 배는 피서객 등 346명을 태우고 오후 4시10분께 홍도항을 출발, 저녁 7시 목포항에 도착 예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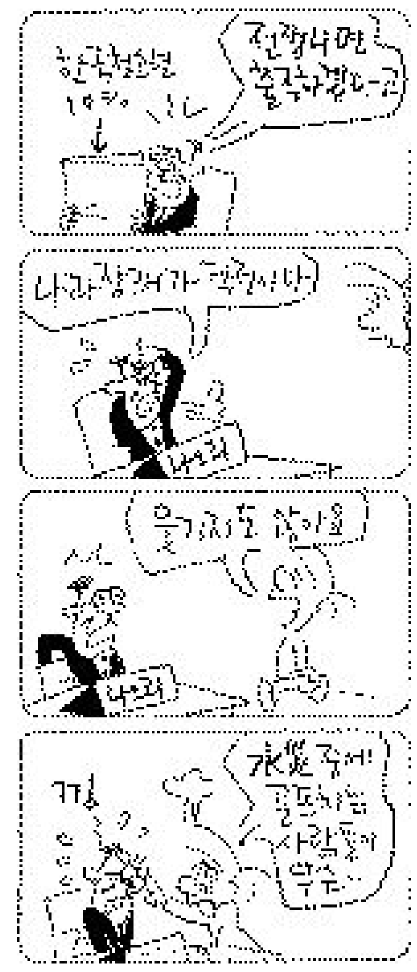
신고를 접수한 동양고속 측은 사고지점에 대체 여객선인 '뉴 골드스타'호를 급파하고, 목포해경도 항해 중인 경비정 2척을 출동시켰다.

'골드스타'호는 표류 50여분만에 기관고장을 자체 수리해 운항을 재개했다. 하지만 정상운항 속도인 34노트를 내지 못하고 12노트로 운항, 당초 예정시간보다 2시간30여분 늦은 이날 밤 9시30분께 목포항에 도착, 여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편 여객선사인 동양고속 측은 여객 요금 1천여만원을 모두 환불해주고 항의하는 여객들에게 관광버스를 대절, 다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나원참 김종두 〈6907〉



양곡 불법유통 신고 '양 파라치' 등장

쌍나팔

○…양곡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노점상 등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양 파라치'가 등장해 눈길.

○…14일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올 들어 본격 시행된 '양곡관리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지난 6월 말까지 135건(765만원)으로 이중 133건(665만원)을 전문 신고꾼 1명이 차지했으며, 나머지 2건 100만원은 단속 공무원에게 돌아갔다고.

○…포상금은 쌀·콩·감자 등 각종 양곡의 품종·생산연도 등 의무 표시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물량별로 건당 5만~100만원이 지급되는 것.

○…농관원 관계자는 "포상금을 독차지한 '양 파라치'는 각종 양곡을 파는 시장 영세상인이나 노점상 등을 주로 신고했다"고 설명.

/연합뉴스